

與, 민생 행보...野 내분 반사효과 대신 차별화 전략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 당내 입단속 주문...대구 서문시장 방문 지지부진 중도층 지지율 끌어올리기...추석까지 현장 방문 주력

국민의힘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표정 관리에 힘쓰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내부 갈등이 폭발하며 혼돈에 빠진 사이, 민생과 경제 행보에 주력하는 집권당의 면모를 극대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선 '총선 특설' 계산이 분주하지만, 지도부는 '야당 분열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

지가 확고해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심야에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언행 자제령'을 내렸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바통을 이어받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애초에 현 상황은 '반사효과'로 얻을 것보다는 정치 공세에만 집중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잃을 게 더 많다고 보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튿날 곧장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로 향했다. 서문시장 상인들 앞에서 "민생을 향해 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가 경제"라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용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선거에 유리하나 불리하나 작은 이익에 자주 연연해선 안 된다"는 기조를 설파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장에는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문구로 뒷걸음을 바꿨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민생·경제 '올인'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나선 것은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반사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무당층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야당 모두 고정 지지층만 간신히 부여잡고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셈이다. 민주당의 각종 리스크를 고려하면 이런 지지율 추세는 국민의힘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눈에 띄는 정책 의제를 내놓거나,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인상을 주지 못하면서 대선·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보낸 중도층 민심을 불러 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임 정권 심판론 내지는 각종 이념 논쟁도 집권 초기에는 효과를 거뒀지만, 중도층 유인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인 셈이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까지 당분간 민생현장 방문에 주력할 방침이다. 25일에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강서구 일대 상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이재명을 보고 정치하지 않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내부 권력 다툼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과 현장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다. 반사효과가 아니라 차별화 효과"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중국 간 한 총리, 시진핑 면담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지난23일 오후 중국 항저우 저장성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인사를 마친 뒤 회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여야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필승 다짐

총선 앞 민심 바로미터...국힘 선대위 발족·민주 선거사무소 개소

여야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쟁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이 강하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에 따른 민심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총력을 펼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5일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리는 선대위 발족식 겸 첫 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수도권에서 3선을 지낸 안철수 의원이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다. 안 의원은 그간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을 토대로 중도층 표심 확보를 통한 당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 아울러 충청을 지역구로 둔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의장, 정진석 의원에 선대위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충청권 출신 인구가 많은 강서구 유권자 분포를 고려, 지역 네트워크가 탄탄한 두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충청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후보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진선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

현역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강서을 당협위원장), 구상갑 전 의원(강서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24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여 필승을 다짐했다. 개소식에는 정청래·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30명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후 최고위원직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고민정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강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개소식에도 총출동하는 등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 표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데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보궐선거까지 패배할 경우 당이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이번 선거 의미를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규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尹, 러·북에 강경 메시지...부산엑스포 유치 각국 회담

유엔총회 일정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4박 6일간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뉴욕 방문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에는 직격탄을 날렸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이렇듯 처음 듣는 저개발국 정상들에 허리를 숙였다.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각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온 북한으로부터 전쟁 무기를 공

급받는 상황을 '자기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어 뉴욕대에서 개최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에서는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를 전 세계가 지원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간에도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윤 대통령의 릴레이 양자 회담은 실로 '생물'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방미 전 언론 브

리핑에서 "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 회담 일정은 30개 정도"라고 귀띔했다. 귀국일을 제외하면 날마다 최소 8개국 정상과 만나는 세계 외교사에서 보기 드문 '신기록'이 현실화했다. 수교 이래 첫 정상회담을 가진 나라만 9개국에 달했으며, 취임 후 첫 만남은 무수히 많았다. 그만큼 최대한 많은 국가와 소통하려 한 흔적이다. 대부분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성사된 회담이었지만, 상대국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라크가 대표적이다. 양자 회담의 의제는 단연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였다. 단 한 번도 동일하게 부산을 설명한 적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라별 사정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김기현 SNS "野, 선의의 경쟁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석수만 믿고 푹하면 해임하고, 탄핵하고, 방탄을 해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벼랑 끝까지 내달은 대한민국의 비정상 상태가 매서운 민심의 힘에 의해 비호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조그마한 단초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쨌든 나라의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진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온전한 법치주의와 합리적 상식이 통하는 정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정신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 없이 또다시 당권과 공천권을 사수하기 위해 법과 원칙,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채 끝 모를 방탄과 입법 폭주로 민의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안쓰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절대다수의 합리적 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건전한 대화·타협·상생을 통한 생산적 국회, 민생정치를 위해 가열찬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